# 파랑 리본 끝에는

고래와 기다린 빈 무릎



글·그림 올레길



지구가 창밖으로 보이는 우주 집에 유나의 동생이 태어났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있었지요. 유나는 엄마랑 리본 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유나는 파랑 리본을 꼭 쥐고 돌아섰어요.
‘엄마는 이제 아기만 좋아하나 봐.’ 그때 고래
친구가 둥실둥실 다가왔어요.



유나는 고래의 지느러미를 만지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동생만 안아 줘서... 서운해.” 고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들어 주었어요.



엄마가 아기를 침대에 살며시 눕혔어요. 그리고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유나야, 이리 올래?” 하지만 유나는 아직 마음이 뾰로통했어요.



“서운했구나. 엄마가 유나를 오래 기다리게 했네.” 엄마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어요. 고래도 유나 곁에 가만히 있어 주었지요.



유나는 한참 만에 리본 끝을 엄마에게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같이 잡을래?”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얼마나 잡고 싶었는데!”



엄마가 리본을 살살 당기자 유나가 둥실 떠서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리본 이쪽 끝에는 유나,
저쪽 끝에는 엄마가 있었어요.



유나는 엄마 품에 쏙 안겼어요. “동생이 생겨도
유나는 언제나 엄마의 보물이야.” 유나는
리본을 쥔 채 스르르 마음이 놓였답니다.

# 끝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남길 바라요.

파랑 리본 끝에는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